

니까야서 길을 묻다 5. 계율 정신의 근원②

붓다에게 持戒의 완성 물은 니그로다

현존하는 불교 계율에 관한 정보는 모두 <율장(律藏)>에 들어 있다. 여기서 <장(藏)>이란 부처님 당시에는 물건을 담은 '바구니(pitaka)'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동아시아권에서는 한자어 그대로 '창고'를 뜻한다. 이른바 계율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불교의 '계율 정신'을 찾고자 할 경우, <율장(律藏)>을 근간으로 오계(五戒)를 비롯하여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수백에 이르는(비구 250계, 비구니 340계) 계율의 조항들을 속속들이 읽어보면 곧바로 알게 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 지킴(持戒)'의 길에서 현실주의적 태도와 근본주의적 태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율

수행자 무리들이 재가불교도 '산다나'가 방문하자 부처님을 폄하하다가 이윽고 그곳에 도착한 부처님과 대론(對論)을 시작하게 된다는 배경으로 경전의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들 무리를 이끌고 있는 '니그로다'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고행(tapas)에 의거한 금욕생활(juguccha)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하면서 '계율 정신'의 문제가 중심 화제로 떠오른다.

경전의 서술에 따르면, '니그로다'가 이끄는 수행자 무리들은 매우 엄격한 계율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나체 상태로 수련하고 거친 옷감으로만 옷을 만들어 입는 모습을 비롯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행위, 앉지 않고 서 있기, 쪼그려



그림 · 양경수

정신'의 근원을 모색하는 일에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계율 정신'이란 불교안의 사람들에게는 '계율 지킴'의 동기과 이유를 확립하는 일이고, 불교 밖의 사람들에게는 불교사상의 대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를 확보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율장(律藏)>의 내용에 대한 입체적인 독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니까야>에서술되어 있는 계율관련 내용을 잘 검토해보면 그 정신을 파악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불교 밖의 종교인들과 수행자들이 어떤 계율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이상을 추구했는가? 또 그와 같은 계율 조항의 내용이나 지킴의 태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견해와 관점에서 서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서는 일을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선택하면 '계율 정신'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지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가니까야>의 스톨다섯 번째인 '우뎀바라카(Udumbarika) 사자후' 경의 내용이 이 문제를 푸는 데 길잡이가 될 만하다.

우뎀바라카 숲에 머무르고 있던 어떤

아얌이 있기, 가시 침대 사용' 등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고행을 종교 실천수행의 이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엄격한 고행의 모습은 매우 까다로운 식사규정에서 좀 더 잘 드러난다. 즉, '음식 초정에 응하지 않음,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음, 술을 마시지 않음, 풀뿌리나 떨어진 열매 등으로 식사' 등의 규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는 모습만으로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그야말로 도인의 품목이 보인다고 인정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그들이 부처님께 이러한 행위를 지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금욕생활의 완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다분히 자신들의 계율 지킴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내보이며 불교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서 불교의 계율 정신의 하나의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道伴의 향기

재가활동가 부부 윤남진·한주영 씨

누구에게나 한 명쯤 소중한 도반(道伴)이 있기 마련이다.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벗'을 뜻하기에 단순한 친구와는 무게감부터 다르다. 부처님도 전생애 불법(佛法)에 관심 없는 바라문 조피발라였을 때 친한 도반 가미까라의 거듭된 권유로 깃사빠 부처님께 진리의 법을 들을 수 있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7천겁의 인연을 쌓아야 이뤄지는 부부가 서로 도반인 경우, 그 인연은 얼마나 소중한가?

재가활동가 부부인 윤남진(49·신대승불교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상임위원), 한주영(47·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씨는 20년 넘도록 서로 격려하고 의지해온 참 도반이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과정이 마치 드라마나 나올 만큼 독특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은 정반대다. 2월 1일 오후,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족한 방식을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서부터 '도반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진정한 도반이 되기까지

남편 윤 씨는 충북 음성 출신이다. 집안은 불교를 믿었지만 그 시절 굶도 하고, 불상과 산신령을 함께 모신 '시골 누구나의 절'을 다녔다. 그 절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 윤 씨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이었는지 문득 삶에서 무의미함을 느꼈다. 매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 싫었다. 그래서 주말이면 우암산 자락의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 혼자만의 사색을 즐겼다. 선선한 바람이 그에게 고등불교학생회 가입을 권유했다. 그렇게 윤 씨는 불교에 심취했다.

"당시 도심교에 일찍 개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많이 애진하셨어요. 그때는 초파일 제등행렬 때 등을 만들어 시상도 했죠.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요. 불교를 알아가면서부터는 교회·성당 다니는 친한 친구들과 종교에 관해 격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가 삶의 허무를 얘기하면 친구는 구약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을 했죠."

윤 씨는 절절한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삶의 허무를 논한 것이 민망했는지 멧떡게 웃으며 말했다.

윤 씨와 달리 부인 한 씨는 철저한 불교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불교학부 장로로 활동했다. 한 씨는 자다가 일어나면 부모님이 화엄이나 범화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일상처럼 봐왔단다. 그녀에게 불교 가르침은 당연히 가장 수순한 것이었다.

"저는 모태신앙이 불교였어요. 항상 불교 가르침이 최고라는 얘기를 들으며 컸을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은 '자발적 발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두 사람은 동국대학교라는 공통분모 아래서 인연을 맺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많이 다르지만.

불교에 심취해 불교학과에 진학하고 싶었던 윤 씨는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나이 50에 낳은



1980년대 불교가 좋아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윤남진·한주영 씨 부부. 각각 85학번·87학번 선배인 이들 부부는 20년 넘도록 불교시민사회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서로를 참 도반으로 여기는 두 사람은 "불교공부 덕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했다. 특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늦둥이 아들이 스님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단식투쟁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부모의 반대에 윤 씨는 조계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그래도 후시나 하는 마음에 합격 가능성이 낮은 경찰행정학과를 1지망에 적고, 2·3지망을 각각 국문학과와 불교학과로 정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과는 달리 예상치못하게 경찰행정학과에 턱걸이로 합격했다.

한 씨는 불교학과에 진학하는 데 장애물이 없었다. 부모는 두 손 들어 환영했다. 다만 친척들의 반대 심할 것을 예상해 한동안은 수학과를 다닌다고 거짓말했을 뿐이다. "부모님이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분들이셔서 현실감이 없다"며 농을 던지는 한 씨 얼굴에는 그런 부모에 대한 감사가 묻어났다.

동국대 85학번인 윤 씨는 대학시절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수십 번의 집회를 주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목포교도소는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는데 우연도 인연이었는지 한 씨의 고향이 일로읍이었다. 한 씨는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들던 지인이 "네 학교선배가 교도소에서 고생하는데 고향 가는 길에 면회 좀 가달라"고 부탁하자 일면식도 없는 윤 씨를 만나기 위해 난생 처음 교도소를 방문했다. 첫 방문에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단박에 거절당한 한 씨, 이후 윤 씨 누나와의 연락을 통해 두 번째 방문에 겨우 면회를 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아마도 제가 필요한 걸 부탁만 했던 것 같아요..."

윤 씨는 한 씨와의 첫 대면이 기억나지 않는 듯 고개를 가웃하며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씨도 "나도 생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광판, 일반기와광판, 스투트형광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성물라디오(가로 12cm x 세로 5.7cm x 두께 2.5cm) + 4GB불경SD카드 + 1200mAh배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상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네 평안을 위한 기도
- 4. 밤이 깨우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엄 염불
- 10. 저녁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손으로 읽다가
- 13. 사랑을 쓸 때는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음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고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버리면
-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천연 1
- 22. 광명천연 2
- 23. 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 30. 선종계 약찬계
- 31. 창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청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후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갈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분

불교시민사회 운동 同業

같이 안 난다"며 웃었다.

두 사람은 이후 편지와 불교서적을 주고받으며 교류했다. 정춘남씨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흘렀을 법도 하지만 이들은 정말 불교 관련 내용만 얘기했다. 불교에 심취해 출가에 관심을 가진 청년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던 아가씨의 만남은 딱 무미건조했다.

2년 8개월 후, 윤 씨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특사로 감옥을 벗어났다. 옥살이를 마친 뒤 만난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 많이 위약되어 있었다. 윤 씨는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머리를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 씨에게 프러포즈했다. 한 씨는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다"며 결혼하자는 윤 씨의 고백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출가에 대한 염원도 있었고, 세속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어서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프러포즈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군요. 사실 당시 남편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들였죠."

1994년 4월 17일을 결혼날짜로 정한 두 사람.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승려대회가 열렸다. 당시 윤 씨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승려대회 후 범불교대회와 열리고, 개혁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물론 결혼식 준비는 한 씨가 도맡아 해야 했고, 윤 씨는 결혼식 전날 링거 두 대를 맞고셔야 겨우 식장에 설 수 있었지만.

함께 불교공부하며 성장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컸던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은 뒤에도 늘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MBTI 성격유형검사 결과서도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이 다른 두 사람이지만 불교사상 공부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었다. 독서와 분석·기획을 좋아하는 윤 씨와 생명·평화·수행에 가치를 두는 한 씨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불도(佛道)를 닦았다.

"사실은 제가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는 전교가 불교가 아니었고, 아내는 불교공부를 하며 석사를 받았으니 가깝긴 길이의 차이가 꽤 컸으니까요. 주로 불교서적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편인데 덕분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윤 씨는 불교계 활동에 있어 부인의 도움이 크다

며 한 씨를 지긋이 바라봤다. 그러자 한 씨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계 흐름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한다"며 "알게 모르게 약간의 경쟁 심리가 있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 씨의 영향이었는지 윤 씨는 3~4년 전부터 간화선 수행을 시작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평소 자주 하진 않지만 윤 씨는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이들 부부는 불교공부 외에 농사에도 열심이다. 농촌출신인 두 사람은 결혼 후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모님을 주말마다 찾아 일손을 도왔다. 귀농을 꿈꾸며 서울 불광동에서 텃밭을 가꾸던 것을 파주 광탄면에 땅을 빌려 주말농장으로 키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8년 종단사태를 지켜보며 승

어려서부터 불교 심취·동국대 진학 민중화운동 중 교도소 수감된 윤 씨 지인 도움으로 한 씨와 면회 후 인연

윤 씨, 2008년 조계종 부대변인 겸 홍보 여성불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한 씨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창립에 함께참여

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종단개혁이 있는지 고작 4년 남짓, 청정승가에 대한 염원은 곧 열세로 변했다. 귀농에 대한 꿈은 더욱 깊어졌고,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귀농학교를 수료하기도 했다. 이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처럼 세속적인 삶에 얽매지 않는 이들 부부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등을 규탄하는 범불교대회로 불교계가 들끓을 당시, 윤 씨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부대변인 겸 기획홍보 등을 맡고 있었다. 그는 11월 대구경북대회를 앞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 40세 생애전환기를 맞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평소 병원에 잘 다니지 않았던 윤 씨. 검진을 받지 않으면 소속 단체에 벌금이 부과되기에 억지로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초기 위암을 진단받았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수술

전날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윤 씨에게 부인 한 씨는 "부처님도 노구를 이끌고 중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암은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병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인지 현실을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죠.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이면서 또 다른 무언가의 원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잘못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법법(佛法)을 공부한 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한 씨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묵직했다. 생(生)과 사(死)가 돌이 아니기에 여여(如如)하고자 노력한다고.

다양한 삶의 고난을 헤쳐 온 이들 부부는 최근 '신대승불교운동본부' 창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대승불교운동본부는 부처님께서 60명의 비구에게 당부했던 전법선언의 정신이 현대사회에 흐려져 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부대중 연대의 장이다. 이 단체는 △신대승불교운동과 아시아 평화공동체 미래 전략 개발 △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과 발전 △불교 가치를 소통하는 문화 형성 △불교시민사회 및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목표로 한다. 20여 년간 불교시민사회단체에 몸 담았던 두 사람은 귀농 전 이를 통해 불교계에 마지막으로 화합하고자 한다.

"새로운 불교인데 불교라는 이름조차 없어도 괜찮을 정도의 불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자는 거죠. 불교·비불교·출가자·재가자 구분 없이 지금 시대의 언어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라는 좋은 보배를 제대로 활용해서 참된 가르침이나 삶 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를 말하는 데 마지막으로 힘을 쓰려 합니다." 이들 부부의 다짐이다.

외로운 삶의 길에서 함께 걸을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다. 도반은 단순히 고독을 달래는 유희가 아니라 스스로를 반조할 수 있는 거울이요, 싯된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스승이다. 세상 무엇보다 절은 부부의 연으로 도반의 길을 걷는 윤남진·한주영 씨. 세속을 멀리한 이들의 맑디맑은 서원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는 따듯한 가르침이 되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법일기

옛 이야기해도 눈물 안 나요

약초 공부 모임에 가는 길이었다. 가로수에 아슬아슬하게 엮힌 까치둥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추운 날 새들은 어디에서 먹이를 구하고 언 몸을 녹일까. 차가운 하늘을 헤매고 다닐 작은 새를 생각하니 불현듯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들었다. 측은지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불교의 '자비'다.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슬퍼하는 마음이 다. 사찰음식은 자비를 깨우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지방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 가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알아보겠느냐고 했다. 어릴 적 고향 친구였다. 그녀는 방송에서 내가 스님이 되었음을 알았지만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단발머리 소녀를 초로의 여인과

를 신중히 듣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일부러 친구의 딸을 알은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스님, 고마워요. 스님 강의 듣더니 나 보고 밖에서 나쁜 음식을 사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나를 걱정해주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나는 무엇이 딸아이를 변하게 했을까 생각했다. 무엇이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했을까. 사찰음식은 재료를 다루고 만들고 먹기까지 오롯이 다른 생명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 '나'라는 생명은 유일무이하지만, 또 다른 생명 없는 존재하지 못한다. 특별하면서도 아



그림·박구원

스님으로 만든 세월이 서운하게 느껴진 것도 잠시, 나는 그녀가 녹록지 않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사교로 남편을 잃고 딸 둘과 살았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기에 온갖 일을 마다 않고 했다. 엄마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그러나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모녀 사이는 조금씩 어긋났다. 편모슬하라는 말이 듣기 싫어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했다. 딸이 듣기 싫어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했다. 딸이 듣기 싫어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했다. 딸이 듣기 싫어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했다.

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

친구의 딸은 아마도 자신이 직접 요리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손길, 엄마의 슬픔과 상처를 헤아리지 않았을까. 직접 밥을 지으면서, 지난날 크게 닦고 난 뒤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려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렸을 테고, 그 밥에 손도 대지 않고 차갑게 엄마를 쏘아보던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던 엄마의 시간들을 그제야 정면으로 마주보았을 지도 모른다. 그 엄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딸은 "몸에 해로운 음식은 그만 드세요"라고 애들러 말한 것이라.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주름과 흰머리가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를 악물고 살았던 세월이 허무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눈물만 내던 차에 나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연신 눈물을 찍어내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으니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면 따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워 보라고 권해 보세요."

얼마 뒤 친구로부터 딸이 사찰음식 강의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지한해 서의현 前조계종 총무원장 재직결정에 대한 94년 종단개혁 동참 재가자들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윤남진 씨(사진 맨 왼쪽).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주영 씨(사진 맨 왼쪽)는 지난해 본지가 실시한 2015 감사편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산 : 010-2310-0404
인천 : 010-5759-8804
광주 : 010-9183-9729
대전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화곡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4구 / 인진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인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인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별 용품

임지형 S형 T분리형 LEDA형 LED후타형 간전시 초

▶방습, 탐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